



봉우컬럼

숨겨진 비밀

사향노루는 늘 어디선가 다가와 코끝을 뽀는 향기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 다녔다. 그러나 그 근원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이 향기를 찾아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사향노루의 코에 유난히 향기가 진하게 다가왔다. 산들바람을 타고 향기가 노루의 코를 자극한 것이다. 사향노루는 드디어 '이 근처에 향기의 근원이 있구나' 해서 마구 달리다가 그만 벼랑으로 구르고 말았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사향노루는 목이 부러졌다. 그런데 자기 배꼽 주위인 사향낭에서 진한 향기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찾아다닌 향기의 근원이 자기 몸에 있었던 것이다.

사향노루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많다. 행복이라는 과랑새를 찾아 일생을 허비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이곳저곳 성경 공부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행복과 사랑,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솟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도 여기저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마음과 생각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니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한 것이고(잠4:23), 생각이 결과(렘6:19)라고 한 것이다.

행복을 잡고 싶은가? 사랑하고 싶은가? 희망의 줄을 잡고 싶은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가? 그렇다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라. 내 집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면 내 집 수도 파이프라인을 갈아야 깨끗한 물이 나오듯, 너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행복도, 사랑도, 희망도 솟아날 것이고 아름다운 미래도 꽃다발을 안고 다가올 것이다. 그것이 나이 70을 바라보고, 목회 30년을 넘기며 알게 된 진리다.

조직화된 정신력의 화신(化身)

목사님의 성역 31주년에 즈음하여 25년을 옆에서 보좌한 사람으로서 내가 본 목사님에 대해 말하고 싶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이 말씀은 목사님의 오늘이 있게 한 원동력이며,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는 비결임을 알 수 있다.

지난 1991년경 처음 교회 사무실에 나왔을 때, 나는 참 희한한 소리를 들었다. 목사님이 계시다는 방에서 "워탈라, 워탈라" 하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소리라고 했다. 자세히 들어보니 "와라까라 썬드라바바디아 ~워탈라"의 소리가 그렇게 들렸던 것 같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

결 알 수 있다.

목사님 방에 들어가 보면 마치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방처럼 깨끗하다. 침대 시트조차 걷지 않고 주무시는지 침대와 침대 밑에 깔린 겹쳐진 타월에 선명하게 찍힌 두 무릎 자국이 보일 뿐이다. 목사님의 오늘은 바로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뵙아보려고 흥내를 낸다. 흰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기도한다고 산 기도도 가본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다. 기도야말로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존경 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점이다. 사람인지라 그동안 왜 실수나 실패가 없었겠는가? 그러나 목사님은 그런 실수를

오직 영적인 교회를 지향하며 마지막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오늘의 목사님을 있게 한 것은 반복이다. 목사님은 설교나 간증의 무한 반복을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 우리 같으면 할 말 되하고 되하는 것이 좀 쑥스럽기도 하여 고심하곤 하는데, 목사님은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마치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리바이벌하신다.

목사님이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까? 목사님에게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 누군가 은혜 받고 변화될 사람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목사님은 조직화된 정신력의 화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70을 바라다보는 연세에도 처음과 같은 동일한 열



2014년 9월, 베네수엘라 말렌시아 집회를 마치고 수도 카라카스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까지 목사님을 모시고 세계를 다니지만 여전히 그 기도 소리는 변함이 없다. 하루는 그 뜻이 무엇이나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란 뜻이란다.

집회에 나가보면 목사님은 일찍 주무시지도 않건만,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요, 새벽 같이 이른 시간에도 그 기도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저녁 집회를 앞두고도 또 기도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곤 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 집회 때마다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기도의 힘이란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성장 촉진제로 삼으셨다.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솔직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므로 울무에 걸린다."고 늘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듯 여러 우려의 말들을 하지만, 나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는 교회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교회다. 아무리 세상풍조가 갈리고 교회에 문화의 옷을 입히려 해도, 우리 교회는

정과 확신으로 전 세계를 메주 밟듯 누비시는 것이다.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싸우셔야 할 대상은 건강밖에 없어 보인다. 자신과 부단히 싸워 승리하신 분이지만, 가는 세월만은 붙잡기 어려운 일하기에 부디 새로운 30년에는 이전보다 갑절의 능력과 30대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길 바랄 뿐이다.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 궤박과 순교가 온다해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한다"는 정신은 변함 없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수행비서 **한은택** 실장

신년축복성회

2016년 1월 4(월) ~5일(화)
저녁 8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구.펜싱)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약1:19~25)

파이프를 교체하라

집 안의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녹물이 흘러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에서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보내는데도 계속해서 녹물이 나온다면 나라를 타할 일이 아닙니다. 내 집 수도와 이프를 교체해야 깨끗한 생수가 팔팔 쏟아집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영혼의 생수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내시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병들어 썩었던 겁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그 입술에서 부정의 말, 근심걱정의 말, 괴롭다, 못살겠다 불평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은 미련하여 자기 길을 굽게 하고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잠19:3)와 같습니다. 유독 내 집만 녹물이 나온다면 내 집 파이프를 갈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시니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어도 내 생각이 단칸방에 살던 때와 같으면 그 팔자가 그 팔자입니다. 내 마음에 녹이 슬면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혈기를 내고 분을 내고 난리입니다. 그러다 주변 사람 다 떠나가고 버림받지요. 그 뿌연 녹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의복만 깨끗하고 멋진 것으로 갈아입어도 자연히 깨끗한 자리를 찾아 앉게 됩니다. 세상 말로 노는 물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런데 지식이 없어 자기의 영혼과 육체, 남편과 아내, 자녀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일, 철야 때마다 봉사하시는 안내 권사님들을 보세요. 아름다운 의복을 갖춰 입고 성도들을 맞으니 어느 누가 이분들을 6,70대 할머니로 보니까? 다른 이가 해준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들 스스로가 '난 이제 늙었는데 뭘?'이란 생각을 바꾸어 자신에게 투자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변화를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장사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신장개업해야 삽니다. 애플, 도요타,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세요. 자사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불량품은 과감히 회수(recall)하고 점검하여 새로 내놓습니다. 그네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세상의 기업들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싫어하고 구태의연해서야 되

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래로 내려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변화가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 4부 은사집회도 기존 예배와는 구별되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주려합니다. 온 성도가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말씀에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요(빌4:4). 춤추며 찬양하고 오순절마가 다락방처럼 전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 이 성전에는 몰려드는 영혼들로 차고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합니 다. 더



총회장 이초석 목사

불어 여러분,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옛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옛그제 지인과 이태원에 있는 한 식당에 갔는데, 글썽 손님이 바글바글 끓어올라 말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 다. 사장님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독수리 같은 눈으로 손님들을 살피고는 연신 밝은 표정으로 "뭘 더 드릴까요?"하며 손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옛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방글방글 웃으니 손님이 구름떼처럼 모여들 수밖에요. 이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마냥 결핍하면 분을 내고 성을 내는 남편과 아내, 목사, 장로, 권사에게 누가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전도자가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여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전8:1). 또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5:5). 여러분,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옥토여야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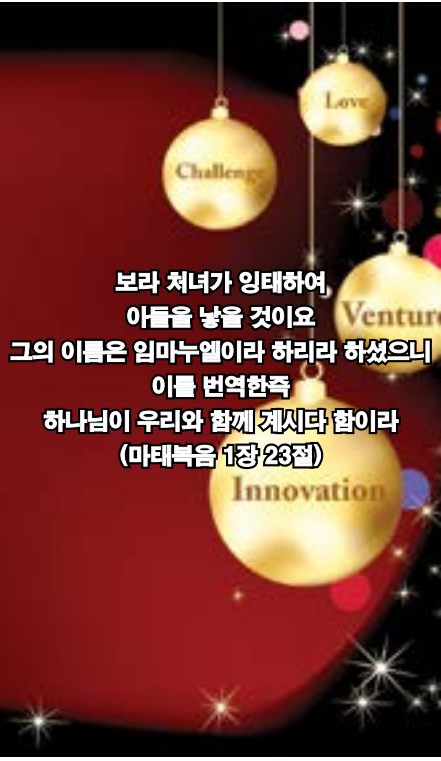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아무리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도 내 마음의 밭이 좋아야 내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세요. 자고로 혈기는 일체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욥34:14).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도 마귀요, 혈기내고 분 내게 하는 것 또한 악한 마귀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들 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관상이란 것도 봅니다. 암요, 얼굴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정신, 신앙 모두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 자격증을 땀다, 유학을 간다, 뭐한다 하며 소위 '스펙'이라는 것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최고의 스펙 쌓기는 바로 '표정관리'라고 조언합니다. 웃는 얼굴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나운 남편, 아내, 며느리, 목사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이란, 내가 스스로 나쁜 환경을 바꾸고 옛 구습을 완전히 버릴 때 비로소 온화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민12:3). 그런 그도 이전에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혈기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 훈련받고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더니,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대역사에 지도자로 쓰임 받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성내기는 더디 하라고요. 성을 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약1:19~20). 저도 예전에는 인상 좋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지만,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으며 노력하니 결국에는 됩니다. 예수

님과 닮아가더라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내가 먼저 생각을 바꾸고 변하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제발 주 안에서 웃으며 사세요.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짠 법, 배움의 끝은 실천이니깐요. 웃는 가정, 교회, 단체에서는 감히 악귀가 건너지 못하고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도 돼지의 오장육부를 가지면 돼지와 같이 더러운 하수구를 찾아다니지만, 양의 오장육부를 가진 돼지

배터리가 떨어진 전자기 어찌 받을 수 있나?

는 양처럼 푸른 초장을 찾아 거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의 병든 생각과 마음으로는 얼굴에 웃음꽃을 피울 수도, 성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을 때(엡4:23~24), 비로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 기도하는 것마다 상달되고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강을 건넌다면 뱃목을 버려야지요. 분내는 것과 탐심, 음담패설과 우상숭배의 강은 이제 완전히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여 천국가정, 교회, 단체를 세웁시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요, 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가오는 2016년, 시편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민들레 31년

한 알의 민들레 씨 청신리 길가에 눈물로 자티워 꽃 피더니
바람타고 이듬해 동네 댁더라
민들레 종단 소문 바람타고 인천 거쳐 서울 댁으니
소문이 바람타고 한반도 순서간 하얏로네
아~ 이제 좀 쉬어보자 가지개 떠며 두 손 베게삼아 장정에 누우니
급하고 강환 태풍 몰려와 쇠로 바람 속에 바다로 던지네
파도에 갈기갈기 찢긴 하프상처 눈물로 끌어안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건너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거센 북풍 타고 중국 대륙에 하얏답게 피어나니
너도 나도 민들레 좋다며 원뿌리 찾아
흑인, 백인, 황인 너도나도 민들레 찾아오네
아~ 이날을 기다린 듯 목화꽃 좋아라 춤추며
뿌리째 먹으라 죽은 자도 살린다 소문내잖다
희생의 희생을 각오하니 내 머리 즐겁지 않더라
미기쁨 가늘 길 없어 춤추며 외치고 외치리
민들레 뿌리째 판다며 북치고 꽁꽁 울리며 만방에 알리리
경원한 내 사랑 목화꽃 손잡고 가리라
뿌리째 뽑혀도 2날의 영광 비라보고 하얏답게 순교길 가리라
여보게, 시냇물 동지들!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저 넓은 바다 1대양 육대주 떠나보지 않겠나
이길만은 가야할 순교길
죽음 뜻이기에.....
여보게, 동지들!
나를 잡으려면 나를 삼거전에 지는 해나 잡아주소!



2015. 12. 15
봉우 이초석

이초석

새로운 30년, 1년차를 보내며

며칠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 경제구조플랜이 OECD국가 중 1위이고, 실행력이 2위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연사로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 30주년에 “나는 앞으로 다시 30년을 뽀다.”고 하셧을 때 엄청 놀랐었다. 멧했다고 표현해야 맞다. 무기로 말하면 핵폭탄 같은 에너지를 발산했다.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대반전이였다. 그 선언은 모든 이들의 심장을 뛰게 했고, 무릎에 힘을 주었고, 손을 불끈 쥐고 일어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1차, 2차...

5개년 계획이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30년을 다시 뽀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 어떻게 65세 되신 목회자 입에서 나오리라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실행력은 목사님의 발자취에서 우리가 함께 보아온 바와 같다. 급기야 주일 오후 3시 예배를 은사집 회로 돌리고 개척하실 때의 마음으로 단 한명만 있어도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주일에 두 번씩이나 설교하시면서 3시간 예배를 이끌고 계신다. 사람들은 목사님께

서 열정이 있으셔서 다시 뽀신다고 하셧지만 육체가 한인지라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함께 뛰어들었다. 그러나 3시 예배에 새로운 기운이, 부흥의 기운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고 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서울 88체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마무리 하실 것이다. 80고령의 모세를 부르시고, 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뽀듯하셧을까? 우리 목사님을 새롭게 30년을 뛰게 하시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다. 목사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계획도 실행력도 최고가 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고자 하는 자를 찾으시고,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분이다. 새로운 30년, 1년차, 첫 단추를 잘 끼워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며, 목사님 성역 3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25:28~29).

이시대 목사

내가 본 이초석 목사

“내가 본 이초석 목사”라는 글을 쓰라할 때 나는 주저함 없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지금까지 20여년을 목사님 곁에 있으며 늘 보았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혼신을 다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가히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고 나는 자신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분의 뜻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목사님, 과연 그러한 분이 있을까? 나는 감히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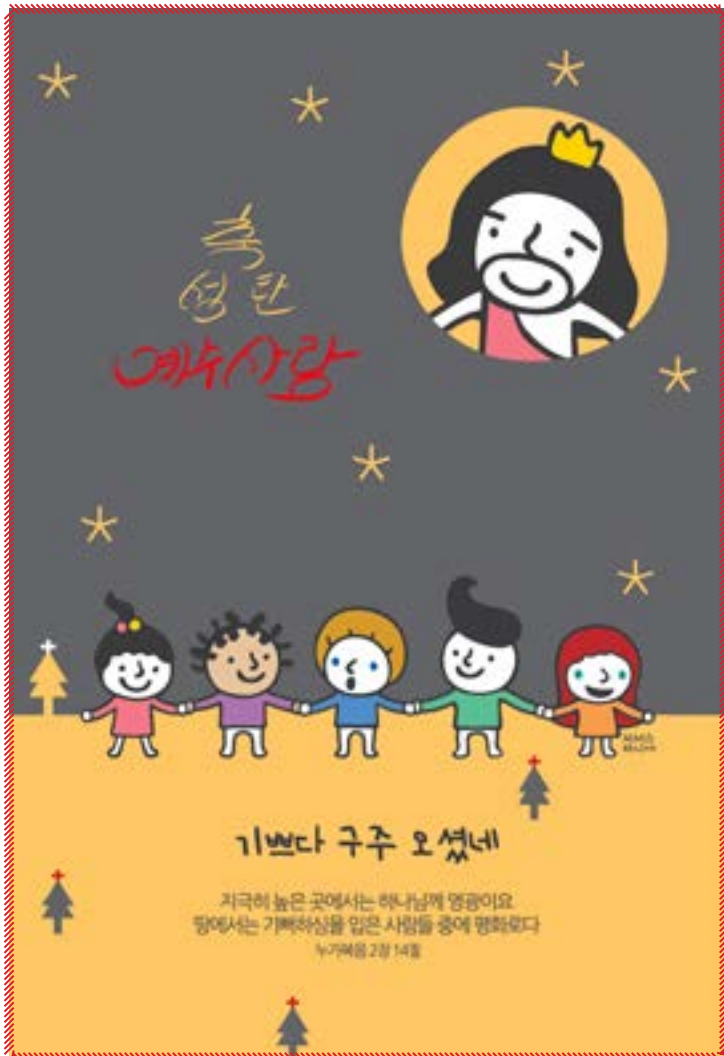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 어떠한가?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태극기를 흔들며 내 나라를 자랑함은 물론이요,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계를 깨우신 분이 누구인가? 분단된 조국을 생각하며 통일의 절실함으로 기도하시다 시작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잠들어 있는 교계에 신선한 충격

과 더불어 하나 된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일깨운 것 아닌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과연 부모라도 그리할 수 있을까? 나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성도를 대하든 “네 부모와 자식한테 하듯 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며 당신은 늘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다. 성도의 어려움이 있으면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도와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해주려는 그 모습, 정말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내가 시험에 들고, 아팠을 때도 걱정 가득 찬 모습으로 기도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어 나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신 분! 당신은 지치고 힘들더라도 내 양만 살찌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함을 여기시는 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시는 분! 이러한 분이냐? 나는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러한 목사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에 최대의 축복이요, 목사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내 마음에 둔다.

이석실 목사



..교단소식..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지난 15일 평택예수중심교회가 이천예배를 드렸다. 이날 총회장 목사님은 담임인 박종수 목사에게 ‘인내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셧다. “나는 모진 핍박 중에서도 세계교구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콕이 비록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더라도 거부가 되는 꿈을 꾸었고, 요셉이 종의 신분이었지만 머리가 되는 꿈을 꾸었듯이 현실은 막막하

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히 10:36). 인내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산삼이 100년 묵으니 사람을 고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피카소의 제자들이 피카소에게 ‘왜 선생님의 그림은 3일이면 팔리는데 저희 그림은 3개월이 지나도 안 팔립니까?’ 라고 묻자 피카소는 ‘너희들은 30일 동안 그림을 그리지만 나는 3년 동안 그리기 때

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의미 아닙니까? 인내는 적응력에 비례합니다. ‘적응력=역경지수(AQ)’인데 적응력이 뛰어난 자는 척박한 환경이라도 적응하여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요셉이 그 샘플입니다. 저는 목회 초 핍박과 모함의 돌이 날아올 때, 처음에는 그것을 피하기만 했으나 점차 적응하여 그 돌을 받아 성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안식을 느끼며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다 역경이 있습니다. 목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침묵에 빠질 것이 아니라 즐기며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요10:11). 여기서 목

숨은 생명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희생을 의미합니다. 만물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희생하며 키울 때 반드시 나에게 100% 보상이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동식물, 사업, 정치, 성도, 고객도 다 마찬가지요. 21세기 최고의 리더십은 어머니의 리더십입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모두 최고의 경지에 이른 최선의 희생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박 목사께서 이 교회를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양떼를 돌본다면 그날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날 참으로 아름다운 목사님의 성역 31년을 축하하는 꽃다발과 케이크 절단식이 있었다. 우리, 그 날에 받은 영광의 고래 꿈을 꾸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